

『더블린 사람들』에서 보이는 일상 속의 전쟁*

민 태 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영국의 출판업자인 그랜트 리차즈(Grant Richards)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집필 의도가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章)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Letters II* 134). 여기서 “도덕사”(moral history)란 단순히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moral”의 어원인 라틴어 “*moralis*”가 의미하듯이 이것은 또한 사람들의 관습(customs)이나 행동의 기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이스는 집필 의도를 통해 이 작품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습, 행동, 생각을 정확하게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더블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닦인 거울”(nicely polished looking glass, *Letters I* 64), 즉 『더블린 사람들』에서 자화상을 보게 하겠다고 한 말과 연결된다. 그는 “자기가 보고들은 것을 묘사(제시)할 때 그것을 감히 바꾸거나 심지어 왜곡시키는” 것이 작가의 본분에 어긋남을 암시하고 있다(*Letters II* 134). 이는 울프(Virginia Woolf)가 「현대 소설」(“Modern Fiction”)이라는 에세이에서 주장한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울프는 “일상적인 날”(ordinary day)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평범한 사람의 마음”(ordinary mind)이 보여주는 “다양한, 미지의, 무제한적인 정신을. . . 가능한 한 외부적인 것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106). 물론 조이스는 그의 편지에서 어느 정도 리얼리즘적인 측면을, 울프는 에세이에서 조금 더 모더니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일상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모더니즘 작가인 울프와 조이스는 또한 『등대로』(*To the Lighthouse*),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 『율리시스』(*Ulysses*) 등을 통해 각각 일상적인 하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울프가 「현대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사소한”(small)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보다 “큰, 엄청난”(big)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삶이 좀 더 의미 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이스의 산문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07). 조이스와 일상성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블린 사람들』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더블린 사람들의 일상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조이스는 일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면에 옮겼다.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꾸며내지 않았다. 그런데 『더블린 사람들』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더블린의 평범한 사람들의 관습/행동/일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에 교전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나 용어, 전쟁 및 군대와 관련된 은유나 낱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플롯이 전쟁의 구도처럼 짜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일상의 어떤 측면을 반영한 것일까? 이것을 통해 조이스는 더블린, 나아가서는 아일랜드의 어떤 현실을 제시하고자 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어떤 이야기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이 “교전, 전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우연한 만남」(“An Encounter”)은 전쟁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미국 개척시대의 서부를 소개한 조 딜런(Joe Dillon)은 인디언 전쟁놀이를 주도한다.

매일 저녁 학교가 파한 후 우리는 그의[조 딜런의] 정원에서 만나 인디언 전쟁놀이를 하였다. 그와 그의 뚱뚱한 동생 게으름뱅이 리오는 마구간의 건초더락에 진을 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진지를 기습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애썼다. 혹은 잔디밭에서 대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잘 싸워도 포

위에 성공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승부는 조 릴런의 전승의 춤으로 마무리되었다. (D 19)¹⁾

이런 “제멋대로의 거친 정신”(a spirit of unruliness, D 20)은 아이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다. 아이들은 “용감하게” 혹은 “장난삼아” 인디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의 두려움으로” 끼여든 경우였다. 즉 공부만 하는 모범생으로 간주되고 약골로 보이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된”(reluctant) 인디언에 속했다(D 20). 그렇다면 주인공 소년은 인디언 전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마 그가 참여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압적인 가톨릭 교육에 대한 반발 때문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인디언 전쟁과 가톨릭 교육은 양 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야만적인 “거친 서부”(wild west, D 19)를 나타낸다면 후자는 문명과 질서를 가리킨다. 이런 구도에서 언뜻 보면 주인공은 후자를 벗어나 전자에 이르고 싶은 듯이 보인다. 쉹(Vincent Cheng)도 인디언들은 소년이 도피하고 싶은 이국적 “타자”를 가리킨다고 말한다(83). 하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이 세계는 그의 일시적인 도피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양 극단 모두를 두려워하며 둘 사이에서 배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엄격한 분위기에서는 “거친 서부의 영광”이 퇴색하지만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멀어지면 다시 “무질서의 이야기”(chronicles of disorder)를 갈망한다(D 20-2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녁의 모험 전쟁이 학교의 판에 박힌 일상만큼이나 싫증나게 된다”는 점이다(D 21). 둘 다를 멀리하고 싶은 그는 “진정한 모험”(real adventure, D 21)을 찾아 학교를 무단결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전쟁놀이가 유행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강한 남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진정한 모험을 찾아나서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20세기 초반 전쟁의 위협이 유럽에서 점점 커지면서 “규율, 훈련, 무기의 숙달”에 대한 열기가 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었고 유사 군대조직 같은 청년/소년 단체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소년들에게 “강하고 자립적이며” “남성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Fitzpatrick 382-83). 이와 관련하여 윌

1) *Dubliners*를 인용할 때는 D로 약(略)함.

스턴(Winston)은 『더블린 사람들』중 유년기를 다루는 이야기들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공격의 문화”(culture of aggression)가 소년들에게 주입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122). 버틀러 신부(Father Butler)는 리오 딜런이 몰래 읽다 들킨 『아파치 추장』(*Apache Chief*)이라는 책을 “쓰레기”로 비하하며 그 대신 “로마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는데(D 20), 이 역사는 정복 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주인공 소년에게는 호전적인 인디언도 억압적인 신부도 피하고 싶은 양 극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디언 전쟁놀이에서 항상 승리하던 조 딜런이 신부에 대한 소명을 받음으로써 그에게서 양 극단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인디언 전쟁에서 가장 용감한 인디언이었던 그가 이번에는 정반대편에서 있는 아마 버틀러 신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언뜻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 극단은 야만과 문명을 나타내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신부에게도 군인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조 딜런의 선택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신부의 소명을 두고 고민하는 스티븐이 느끼듯이 성직자들의 획일성, 규율과 훈련의 삶, 그리고 버틀러 신부가 보여주듯이 권위, 위협적인 명령이 지배하는 삶은 군인의 삶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또한, 전쟁터에서 군인은 인디언처럼 야만적이 되어야 한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조 딜런의 이야기는 버틀러 신부가 가르치는 로마 역사, 즉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역사와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가톨릭 신부는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주人公이 버틀러 신부의 수업을 피하여 학교를 벗어난 후 만나게 된 이상한 노인에게서도 이 두 가지, 즉 군인과 신부의 상반적인 측면이 보인다. 먼저 이 노인과 「자매」(“The Sisters”)에 나오는 플린 신부(Father Flynn)와의 유사성들에 대해서는 일찍이 마갈래너(Marvin Magalaner)가 열거한 바 있다(76). 그도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고 누런 치아를 보이고 있으며 책을 많이 읽었다. 또한 버틀러 신부 혹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도런 신부(Father Dolan)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에게는 매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도 그가 처벌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매질에 대한 강조는 군대의 규율과 유사하다. 이와 더불어 조이스의 동생인 스타니스로스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그가 약 50세쯤으로 보였고 군인다운 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 어디에선가 본 구절을 따서 그를 오십부

장(captain of fifty, 62)이라 명명했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성경에서 “오십부장”이란 오십 명을 거느린 군 지휘관을 말하지만 스테니스로스는 50세의 의미로 썼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 노인을 군인 같은 사람으로 보았고 그에 걸맞게 노인은 공포를 무기삼아 어린이의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전쟁놀이는 「애러비」(“Araby”)에서도 일상이 되어 있다. 저녁을 먹은 후 아이들은 어두워져 가는 마을에서 전쟁을 한다.

차가운 공기가 우리 몸을 감쌌고 우리는 몸이 달아오를 때까지 뛰어 놀았다. 우리의 고향은 조용한 거리를 메아리쳤다. 가옥 뒤에 놓여 있는 어둡고 질척질척한 골목길을 지날 때 우리는 오두막에서 튀어나온 거친 패거리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기도 했다(ran the gantlet). 우리는 잿더미에서 악취가 나는, 흠뻑 젖어있는 어두운 정원의 뒷문들을 통과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부가 말갈기를 빗질해 주거나 썰쇠가 달린 마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킁킁하고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 이르렀다. (D 30)

주인공 일행은 거친 패거리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는데, 여기서 “ran the gantlet”은 호된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나, 원래는 군대의 처벌방법에서 나온 용어이다. 처벌받는 자는 두 줄로 서 있는 군인들 사이를 달려야 하는데 이 때 군인들은 매나 무기 등으로 양쪽에서 그를 때리게 된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양면 공격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된 군대용어로 이 장면에서 아이들이 단순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놀이를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니스로스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몇 년 뒤, 아직 브레이를 이사가기 전에, 우리는 동갑의 다른 전투적인 영웅들, 즉 마텔로 테라스 튀턴 골목길에 살고 있던 아이들과 함께 적과 교전하기 위해 같이 가곤 했다. 그것은 「애러비」에서 회상되고 있듯이 거의 항상 무혈의 소규모 전투였지만,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모험의 전율을 주기에 충분했다. (16)

이처럼 더블린 남자 아이들의 일상은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사춘기 소년의 감정에도 적용된다. 소년은 친구인 맨건의 누나를 짝사

랑하는데 속모를 돕기 위해 따라나선 소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그는 그녀의 이미지를 놓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이처럼 그녀에 대한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마치 중세시대의 기사가 성배를 호위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는 자신이 전투적인 기사가 되어 “수많은 적들 사이로 성배를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것”(D 31)으로 상상함으로써 사랑도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애러비」는 소년이 떠칠 동안 그의 의식을 사로잡았던 “애러비”라는 이름의 이국적인 자선 바자에서 환멸을 느끼는 것으로 끝난다. 그가 이상화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해 왔던 대상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상업적인 장소로 판명된다. 그곳은 영국 상인들의 “영국 억양”(D 35)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더블린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블린에 주둔한 영국 군인들의 모습일 것이다. 「에블린」(“Eveline”)의 마지막 장면에서 에블린은 프랭크(Frank)와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yres)로 도피하기 위해 항구에 오게 된다. 그곳에서 그녀는 “군용 행낭을 든 [영국] 군인들이 항만을 가득 채우고 있음”(D 40)을 보게 된다. 이어서 그녀는 곧 프랭크와 함께 감행하려했던 탈출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속수무책의 짐승”(D 41)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끝부분이 작품의 시작부분에 나오는 한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에블린」은 “그녀는 저녁이 골목을 침범해 오는 것을 지켜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D 36)로 시작한다. 여기서 “침범하다”(invade)는 영국군의 아일랜드 침범과 그에 따른 지배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3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에블린이 마비상태에 놓이게 되기 전까지는 그녀의 관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각 단어는 그녀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vade”는 지금 일상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정도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군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윌리엄스(Williams)도 강조하듯이, 군사 용어가 일상생활화 되었다는 것은 “아일랜드인의 의식에 대한 영국의 구속”(104)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 아일랜드인들에게 군사 작전이라든지 군사용어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서 에블린은 새 삶을 향해 도망가려던 애초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공교롭게도 탈출 비상구는 영국 군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의 구도를 상기시킨다. 소년은 버틀러 신부의 억압으로부터

의 해방을 꿈꾸지만 군인 같은, 또 다른 억압적인 노인을 만남으로써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두 이야기 모두 군인 혹은 군인 같은 존재가 위협하듯이 비상구를 지키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좌절을 목격하고 있다.

『대응』(“Counterparts”)에서 알레인(Alleyne)씨는 북아일랜드 억양으로 명령조의 큰 목소리를 내는 영국계 사장이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패링톤(Farrington)은 그의 억양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술집을 찾지만 런던 억양을 쓰는 매력적인 여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민족의 명예까지 내걸고 겨룬 영국인 웨더스(Weathers)와의 팔씨름에서 연거푸 두 번이나 패배함으로써 진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앞의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술을 통해 도피처를 찾고자 하나 시계까지 저당 잡히며 마신 술이 그를 취하게 하지도 않는다. 축적된 분노는 그를 숨 막히게 할 정도에 이른다. 그는 영국인들로 인해 얻은 좌절감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을 탄다. 그가 전철에서 내려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는 장면에 대한 묘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차는 쉘본 로에서 그를 내려주었고 그는 병사(兵舍)의 벽이 드리우는 그늘 아래를 욱중찬 몸을 움적이며 지나가고 있었다. (D 97)

작품에서 지배자/피지배자, 영국인/아일랜드인, 제국주의자/식민지인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후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패링톤이 좌절감의 늪에 빠져 있는 순간에 그가 영국 군대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영국군의 주둔은 아일랜드인의 삶에 그늘을 드리우고 아일랜드인의 일상의 감정도 영국/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처럼 그늘을 드리우며 탈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군인 혹은 군대이다. 『하숙집』(“The Boarding House”)에서도 군인 같은 인물이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무니 부인(Mrs Mooney)과 딸 폴리(Polly)는 무언의 공조를 통해 건설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도런(Bob Doran)을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조이스는 『피네간즈 웨이크』(Finnegans Wake)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이야기 제목으로 말장난(pun)을 할 때, 이 이야기를 “boardelhouse”라 부른다(FW 186:34). 이탈리아어로 “bordello”는 “매춘굴”(brothel)이라는 의미가 있어 비평가들 중에는 어머니와 딸을 포주와 창녀로, 그리고 아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고

객을 위협하는 강패로 보기도 한다(Halper 76). 어머니가 딸의 육체를 시장에 내놓고 적당한 고객을 유혹했다는 점과 아들의 난폭성이 그 고객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해석은 아니다. 아들 잭(Jack)은 “술주정꾼 혹은 불한당”으로 악명이 높고 “군인들의 음담패설/욕설”을 즐겨 썼다(D 62). 그는 보통 새벽녘에 귀가하였고 주먹깨나 쓰는 사나이였다. 무니 부인이 도련을 불러 결혼약속을 하게 하는 날을 일요일로 잡은 것은 그 날이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로 아들 잭도 집에 있기 때문이다. 무니 부인을 만나러 층계를 내려오던 도련은 올라오던 잭과 마주치게 된다. 도련은 잭의 “두툼한 볼독 같은 얼굴”과 “두툼한 짧은 팔”에 위협을 느끼는 듯이 보인다(D 68). 그 순간 도련은 한 남자가 폴리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가 “잭의 폭력”(D 68)에 직면하게 되었던 밤을 기억한다. 잭은 자기 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했었다. 그 위협은 도련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무니 부인의 소환을 받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가 느끼게 된다. 그는 그 순간 “지붕을 뚫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도피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D 67-68). 그것은 마치 「에블린」에서 에블린이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떠나고 싶은 마음, 「우연한 만남」에서 서술자 소년이 버틀러 신부의 권위와 억압의 교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유사할 것이다.

하지만 앞선 두 이야기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도피는 좌절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랭크와의 임박한 결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에블린과 마찬가지로 도련도 결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다. 에블린의 심정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형용사 “helpless”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도련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앞의 이야기와 달리 영국 군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군인 같은 잭이 탈출로를 봉쇄하며 버티고 서 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신부와 군인을 닮은 노인이 소년으로 하여금 도피를 불가능하게 했듯이 여기서도 같은 부류가 그의 도피를 막고 있는 것이다. 도련은 신부를 찾아가 고해를 하지만 신부는 “모든 우스꽝스러운 세부사항까지 꼬집어내게 만들어 마침내 그의 죄를 확대하는 바람에 보상이라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주어진 것에 대해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다”(D 65). 여기서 “빠져나가는 구멍”(loophole)이란 단어에는 외부의 적에게 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벽의 총구멍”이란 뜻이 있어서 원래 전쟁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Halper 75). 결국 신부는 정신적으로, 군인 잭은 물리적으로 그

를 결혼이라는 뒧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따라서 더블린 사람들을 억압하는 두 축은 신부와 군인,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와 영국 제국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스티븐이 『율리시스』(*Ulysses*)에서 “두 주인”(U 1:638)을 섬기고 있다며 종교와 정치를 가리킨 것과 일치한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잭이 직접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국의 아일랜드 침략과 통치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군인정신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군인 같으면서 정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두 한량들」(“Two Gallants”)의 코얼리(Corley)일 것이다. 그에게서는 군국주의적인 태도가 누구보다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군국주의적 자세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착취하는 제국주의적/가부장적 자세와 연결된다. 코얼리는 “우람한 체격”으로 같이 걷는 상대방을 밀어붙이듯 거칠게 걸으며,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한다. 그는 경감(police inspector)인 “아버지의 체격과 걸음걸이”(D 51)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마치 군인들이 열병하듯이 항상 시선을 똑바로 한 채 걷는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주 사복을 한 경찰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목격된다. 아마 그는 영국지배를 문자적/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영국총독부(Dublin Castle)의 정보제공자인 듯하다(Simmons 24). 그리고 그는 군인 처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정복자”(conqueror) 같은 모습이 있다.

그의 거대한 체구, 여유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힘찬 구두 소리에는 정복자다운 데가 있었다. 그는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인사(saluting)도 하지 않고 즉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뒤꿈치로 몸을 반쯤 돌렸다. 한두 번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서(at close quarters)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D 55)

윌리엄스도 지적하듯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복자”(conqueror)라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고 “saluting”([거수]경례하기), “execute”(실시하다) “at close quarters”(백병전이 되어)가 모두 전쟁 혹은 군대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이다(104-5). 아마 코얼리의 군인 같은 모습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군인의 일처럼 묘사되었을 수 있고 혹은 군대 및 전쟁 용어가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²⁾

2) 휴 케너(Hugh Kenner)는 조이스가 중립적인 서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이 묘사하

한편, 코얼리가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코얼리가 여성을 착취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얼리는 그 자신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녀로 하여금 주인으로부터 시가를 훔쳐오도록 시킨다. 그리고 그가 전에 “정복했던” 여성은 창녀가 되어 있고, 현재 그의 착취의 대상인 하녀는 임신을 피하려고 피를 내고 있는 “쓸 만한 계집”(fine tart)이다. 우선 여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의 어휘들이 주로 속어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위 가부장적인 사내(macho)가 으스대며 여성을 비하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집”(tart)이라는 단어에 “창녀”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하녀도 창녀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넘치지 암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코얼리와 하녀의 관계가 제국과 식민지의 정치적 관계와 유사하다(Williams 106)고 본다면, 그녀의 착취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것이요(남기현 18), 그녀의 타락은 아일랜드의 전략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코얼리는 에블린이 항구에서 보았던 영국군들과 같은 부류의 “정복자”인 셈이고 에블린 같은 아일랜드 여성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레너헌이 그를 “비열한 배신자”(D 53)라고 부른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대응」의 패링튼이 영국군 병사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듯이 레너헌도 정복자 행세를 하는 코얼리의 그늘 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인/정복자 코얼리는 여성을 농락함으로써 그녀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해버린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자주 정복자/승자와 패자는 미리 정해져 있다.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에서 지미 도일(Jimmy Doyle)은 유럽대륙에서 온 친구들과 한 부류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요트에서 벌어진 카드놀이에서 이미 자신이 패자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승자의 영예는 당연히 영국인 라우쓰(Routh)에게 돌아간다. 이 이야기의 제목에서 “After”는 경주는 해보나마나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연한 만남」의 조 딜런은 인디언 전쟁놀이에서 항상 승자였고 결국은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어 버틀러 신부의 뒤를 잇는다. 버틀러 신부는 승자의 역사인 로마 역사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승자의 편에서 있다. 「하숙집」에서 무니 부인

고 있는 인물이 사용했을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찰스 삼촌의 원리”(Uncle Charles Principle)라고 명명했다(18). 여기서 서술자는 군인다운 코얼리를 묘사하면서 그가 사용했을 법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은 도련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다”(D 64). 도련은 다른 이들과 달리 진지한 젊은이이므로 세간에 소문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여론도 그녀의 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전승을 확신하는 경우이다. 「어떤 어머니」(“A Mother”)에서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은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이 유행을 타기 시작할 때 딸이 아일랜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딸을 성공시키고 싶어 한다. 마침내 딸은 민족주의자들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반주자로 초대를 받는다. 4회의 음악회에 반주를 하고 8기니를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3회로 줄어들었고 사례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키어니 부인은 계약서의 자구에 매달려 절대 물러서지 않으며 계약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무대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맞선다. 양 측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은 마치 권투시합처럼 묘사되어 있다. “한 쪽 코너에는”(D 147) 민족주의자 쪽 실무자들과 오매든 버크(O'Madden Burke)씨 등이 있고 “다른 쪽 코너에는”(D 148) 키어니 가족과 친구들이 서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오매든 버크씨는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목격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제 더블린에서 음악인으로서의 캐슬린의 장래는 끝났다”(D 147)고 단정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작품의 끝부분에서 이 선언이 권위 있는 것이었음이 판명된다. 아직 싸움이 진행 중인데도 승패는 오매든 버크 편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잉거솔(Earl G. Ingersoll)이 지적하듯이, 버크씨는 자신의 “서부적인 이름”(D 210)이 연상시켜주는 아일랜드적인 요소를 잘 이용하면서도 균형 있게 영국의 기득권 세력에 기댈 줄 아는 “영국화된 아일랜드인”이라 볼 수도 있다(142). 기득권 자로서 그는 이미 정해진 승리자인 것이다.

이처럼 『더블린 사람들』에서 일상의 다양한 사건들은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종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은총」(“Grace”)에서 폭음을 일삼는 커넌 씨(Mr Kernan)는 그 날도 술에 취해 술집의 계단에서 화장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파워 씨(Mr Power)는 물리적으로 굴러 떨어진 커넌 씨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영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는 영국 총독부인 더블린 성(Dublin Castle)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선배인 커닝햄(Martin Cunningham) 및 머코이(M'Coy)와 함께 커넌을 피정에 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계획이 마치 전쟁에서 공략의 대상에 대한 전략인 것처럼 군사적인 비유를 들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 일의 책임자로 생각하

는 커닝햄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그는 완벽하게 사리분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지적인 사람이었다. 인간성에 대한 그의 지식의 칼날은 그의 천성적인 예민함에 경찰법원에서 맡은 여러 사건들의 실제적 경험이 축적되어 생긴 것으로 보편 철학의 바다에 잠시 몸을 담금으로써 담금질되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얼굴이 셰익스피어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했다. (D 157)

요컨대 커닝햄은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지식의 “칼날”이 “담금질되었다”고 하는 비유적 표현은 서사시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 영웅들이 칼날을 버리고 담금질하여 전투에 대비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커닝햄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공격 대상인 커닝은 친구들이 그의 방에 찾아 왔을 때 “노병의 자부심을 가지고(with a veteran’s pride) 약간 자랑스럽게”(D 157)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로 생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군인이라는 이상적 자아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그의 외모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는 품위 있는 실크햇을 쓰고 각반(gaiters)을 차지 않고서는 결코 시내에 돌아다니지 않았다. 남자란 이 두 가지 외관(grace)만 갖추면 언제든지 검열(muster)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D 154)

여기서 “각반”과 “검열”은 군대의 용어로서 일상적인 의상이라든지 일반인의 시선도 군대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가 차 감별사(tea taster)로 영국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과 이 일자리가 영국제국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Williams 95)에서 그와 영국 군인과의 관련성이 암시되어 있다. 또한 그 당시 더블린 사회에서 술과 남성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군인의 남성성이 이상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술을 잘 마시고 군인처럼 각반을 차고 다니는 커닝 씨가 자신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게서 일상과 전쟁, 일반인과 군인이 교환 가능해진 듯하다.

커닝의 방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그가 행복하고 피정에 가도록 하게 하려는 전쟁이다. 친구들은 호기심을 자극한 후 회피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우회공격을

하다 마침내 정면 돌격을 하여 적을 무찌르게 되고 결국 커넌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어 피정에 가겠다는 답을 얻어낸다.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파워에게서 나왔으나 친구들 덕택에 그가 군사적 전술을 써 볼 겨를도 없이 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만족한 파워는 자신이 “완전히 전술에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He felt completely out-generalled, D 171). 일이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에 친구들의 전술이 대단해 보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전쟁과 같았음을 그가 쓴 군사용어 “outgeneral”에서 알 수 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다시 영국총독 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름조차 암시해주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power)이다.

파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댄스조차도 군사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 스퀘어 댄스를 가리키는 용어인 “lancers”는 “창기병”(槍騎兵)이란 뜻도 함축하고 있어서 영어 사용자들에게 군사적인 연관성을 명확하게 해준다(Riquelme 128). 윈스턴은 “lancers”가 18, 19세기에 아일랜드에 주둔했던 정예 기병대인 “the Royal Lancers”를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용어가 아이버스(Miss Ivors) 양과 게이브리엘(Gabriel)의 연쟁 시작과 끝부분에 액자처럼 위치해 있음에 주의를 환기시킨다(123). 아이버스 양과 게이브리엘은 댄스의 파트너가 되지만 그들에게 댄스는 충들의 수단이 된다. 리켈머의 비유를 빌려 오자면, 두 사람 간에는 마상 창 시합이 일어나고 게이브리엘은 낙마하여 당황하게 된다(128).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아이버스 양은 보수신문인 일간 『익스프레스지』(*The Daily Express*)에 매주 칼럼을 쓰는 게이브리엘을 “친영파”(West Britain)라 부른다. 그러자 게이브리엘의 얼굴에 허를 찔리고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군인에게서 볼 수 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보인다. 두 사람의 대결에는 정치와 젠더가 융합되어 있다(Riquelme 129). 둘 중 좀 더 전투적인 아이버스 양은 여성적이라기보다는 남성적이다. 그녀는 여성적인, “가슴이 깊이 파인 옷”을 입은 대신 민족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큰 브로우치”를 착용함으로써 공격적인 면을 보인다. 그 브로우치는 아일랜드의 문장이 새겨진 것으로 그녀는 그녀의 민족주의적 정치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성적인 매력의 육체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전통적인 여성과 달리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대담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을 광고함으로써 좀 더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게이브리엘은 아이버스 양의 공격에 적절한 말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데 실패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당황해 할 뿐이다. 또한 아이버스 양은 마치 창으로

찌르듯이 게이브리엘을 응시하는 반면 게이브리엘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한다. 게이브리엘의 이마에 홍조 혹은 부끄러움이 “침입하였다”(D 189)라는 표현에서 “침입하다”(invade)는 단어에 대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가 그녀의 언어의 창에 의해 공격당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둘째 「에블린」의 시작 문장이 그렇듯이, 일상생활 속에 군사용어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에블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여기서는 감정의 변화를 군사용어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버스 양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당시 문예부흥운동을 비판했던 조이스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게일어 부활운동 등을 하는 편협한 문화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아이버스 양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터(John Wilson Foster)도 눈에 띄는 브로우치를 달고 다니는 아이버스양처럼 그 당시 유행하던 문화 민족주의 운동을 요란하게 광고하고 다니던 중산층 여성들을 조이스가 풍자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150-51). 나아가서 포스터는 그녀를 “페미니스트와 반정부 투사(militant)”로 간주한다(150).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더블린에는 그에 맞서는 민족주의적 투사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군인은 합병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모두에게 위협이라기보다는 이상이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Fitzpatrick 379).

조이스는 군국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그가 군국적인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편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두 한량들」을 악평하고 그것의 인쇄를 거부한 인쇄업자를 가리켜 “군국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militarist)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이다(Letters II 132-33). 조이스가 군사적인 용어를 혐오했다는 것은 대학생 시절 그가 「문학 역사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부터 드러난다. 그는 케네디(Hugh Boyle Kennedy)라는 친구가 동아리에서 「무기, 국가의 필수품」(“The War Machine, A State Necessity”)이라는 글을 읽자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러니하게 팔복(beatitudes)을 군사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그 글을 공격하였다고 한다(Ellmann 69-70).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교묘하게 군사적인 것이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임을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스테니스로스는 좀 더 직설적으로 조이스가 전쟁을 혐오했다는 것과 기독교 전설의 반군국주의적 측면이 아직도 조이스를 매혹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112-13). 「은총」에서 군인처럼 각반을 차고 다니는 커넌이 화장실로 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참전용사처럼 부상을 입는 것은 군사적인 것에 대한 조이스의 회화화인지 모른다. 커넌의 전쟁터란 술집 화장실에 불과하고 그의 전투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 전부이며 그의 부상이란 무공의 훈장이라기보다는 술고래의 실족에 의한 수치스러운 상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실제의 전쟁은 없지만, 많은 이야기가 전쟁의 구도로 되어 있고 일상생활은 모험 전쟁과 군대의 어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전쟁의 일상화는 제국의 침범과 군대의 주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군국주의는 “호전적인 시대에 보편적인 찬동을 불러 일으킨 몇 안 된 아일랜드인의 정형 중의 하나”가 될 정도였다(Fitzpatrick 379). 더블린 사람들은 제국 군대의 억압적인 그늘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내면화했고 그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이스는 이러한 더블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군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부패, 억압, 배신, 폭력, 착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군국주의뿐만 아니라 더블린을 지배하는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비판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전남대)

인용문헌

- 남기현. 「『더블린 사람들』: 조이스의 식민주의 비판」. 『제임스 조이스 저널』 5 (1999): 11-31.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UP, 1959.
- Fitzpatrick, David. "Militarism in Ireland, 1900-1922." Eds. Thomas Bartlett and Keith Jeffery. *A Military History of Ireland*. Cambridge: Cambridge UP, 1966. 379-406.
- Foster John Wilson. *Fictions of the Irish Literary Revival: A Challenging Art*. Syracuse: Syracuse UP, 1987.
- Halper, Nathan. "The Boarding House." Ed. Clive Hart.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69. 72-83.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96.
- Joyce, James. *Dubliner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Press, 1969.
- _____. *Ulysses*. Eds. Hans Walter Gabler, Wolfhard Steppe, & Claus Melchio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Press, 1957. Vols II and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Press, 1966.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James Joyce's Early Years*.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8.
- Kenner, Hugh. *Joyce's Voic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8.
- Magalaner, Marvin and Kain, Richard M. *Joyce: The Man, the Work, the Reputation*. New York: New York UP, 1956.
- Riquelme, John Paul. "'The Dead': The Dissolution of the Self and the Police." Eds. Bosinelli, Rosa M Bollettieri and Harold F. Mosher Jr. 123-44.
- Simmons, Allan H. "Topography and Transformation: A Postcolonial Reading of 'Dubliners.'" Ed. Leonard Orr. *Joyce, Imperialism, & Postcolonialism*.

Syracuse: Syracuse UP, 2008.

Williams, Trevor L. “No Cheer for ‘the Gratefully Oppressed’: Ideology in Joyce’s *Dubliners*.” Eds. Rosa M Bollettieri Bosinelli and Harold F. Mosher Jr.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 Lexington: UP of Kentucky, 1998. 87-109.

Winston, Greg C. “Militarism and ‘The Dead.’” Ed. Frawley, Oona.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Dublin: The Lilliput P, 2004. 122-32.

Woolf, Virginia. *Collected Essays*. Vol. 2.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25. Print. 4 Vols.

Abstract*Militarism in Dubliners*

Taeun Min

This essay examines the vocabulary and metaphors of militarism that run through *Dubliners*. The culture of aggression appears frequently in the childhood stories; children engage in war games and read the stories of military adventure. In “Araby,” the story about romance, for instance, the boy protagonist is compared to a romantic knight, a warrior protecting the chalice of his beloved’s image. The dance in “The Dead” becomes the vehicle for a clash; the name for the kind of dances makes the military connection explicit. “Eveline” begins with “invade,” a military word that is used in everyday life.

The pervasive military metaphors and connotations show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British Empire on Irish consciousness. The soldiers who indicate the British domination seem to block the exit of Dubliners who dream of freedom. The station at the North Wall, where Eveline is about to leave for her new life, is filled with British soldiers. Failing to find even a temporary chance of escape from his Protestant boss, Farrington in “Counterparts” slouches home, symbolically enough, “in the shadow of a British Army barracks.” Corley, whose military posture and connections shows his association with the British army, dupes and corrupts the servant girl who is indicative of Ireland, thus blocking the girl’s exit to the future. Bob Doran in “The Boarding House” wants to run away from the forced marriage but Polly’s soldier-like brother scares him into matrimony.

The winner of the battles is always already decided. Jimmy Doyle in “After the Race” knows that he will be the heaviest loser and that Routh and England will emerge triumphant in the card game. Mrs. Mooney in “The Boarding House” is sure that she will win the battle with Doran. Mr. Power’s religious attempt to help

Mr. Kernan reform in “Grace” is a battle which he is sure to win. His “power” derives from his employment in Dublin Castle, the seat of British rule in Ireland.

Even though there is no actual battle in *Dubliners*, the preoccupation with weaponry and warfare stands out. That preoccupation seems probably due to the European war and the presence of British forces in Dublin. Thus, militarism was one of the few Irish stereotypes which evoked almost universal approbation in a bellicose era. Experiencing an everyday life of militarized culture, Dubliners internalized the language of war to such a degree that they often use it unawares. In highlighting that language, Joyce seems to criticize militarism, a factor of imperialism, by exposing its negative aspects in *Dubliners*.

■ **Key words** : Joyce, *Dubliners*, militarism, army, soldier, war, priest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군국주의, 군대, 군인, 전쟁, 신부)

논문접수: 2012년 5월 29일

논문심사: 2012년 6월 1일

게재확정: 2012년 6월 15일